

협회사식

협회장동정



▷ 6월 8일: △산유능력
검정중앙회 임원교육
(유성 흥인호텔)
△건건전경마 추진위원
회 조찬간담회 교육문
화 회관(무궁화홀)

▷ 6월 12일~18일: △한우심사기술교육(용인
위생연구소)

▷ 6월 16일: 홀스타인품평회 추진위원 협의회
(본회의회의 실)

2006 한국낙농박람회 2차 추진위원회 개최



지난 6월 1일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낙농육우
협회 김봉석 상무, 농협중앙회 한광진 박사, 한
국낙농경영인회 조규용 사무총장 등 실무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박람회 개최에 관한
실무자 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낙농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낙농박람회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소비자들과 가까운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데 개최장소섭외(한강고수부지, 경마장 등)가

지난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낙농박람회는
시간을 갖고 차기 대회때 개최하는것에 최종 의
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금년도 홀스타인품평회 개최시에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대회로 승화시
키고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소비
자가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자는데 의견
을 같이 하였다.

제 15회 한국홀스타인품평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16일 추진위원 및 준비위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한국홀스타인품평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1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추진위원 및 준비위원 위촉장 수
여가 있었다.

위촉된 추진위원 및 준비위원들은 이에 맞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출품두수 확보에 주력 하
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매년 문제로 제기된 전기, 착유시설, 물
공급, 상하차대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하는데 최
선을 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회등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품평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2006년 지역검정회 임원심화교육

한국종축개량협회 검정평가 모임인 종축개량
산유능력검정중앙회는 지난 8~9일 대전 유성
흥인호텔에서 지역검정회 임원진 9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임원심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심
화교육의 의의는 젖소개량과 검정사업의 활성화

업계소식

(주)중앙진테크

미국 최대 젓소정액 제조 공급회사인 ABS사의 국내공급사 중앙진테크는(대표 배규익) 최근 5월 미국 TPI 1등을 차지한 불턴(29H011111)에 대한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형과 유방 형질쪽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어 종합 평가에서 공히 1등을 차지한 불턴은 외모 +2.14 유방 +2.52 지체 +1.88 의 체형 3개 형질은 미국 상위 5% 내의 놀라운 성적을 지녔으며, 목장에서 도입시 체형과 유량에 고른 개량을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문의:

한수이남, 충청도 지역: 011-397-2433

한수이북, 강원도 지역: 011-414-2834

전라도: 010-2255-2255

경상도: 010-2701-2667

(주)바이오 앤 그린텍

21세기 환경 친화적인 유기축산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바이오 앤 그린텍(대표 송시현)에서는 천연항생물질을 생성하는 유익미생물과 간기능개선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는 소마노 신제품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의 5kg에서 30kg 포장으로 늘려



화를 기반으로 생애생산성 향상으로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전국의 젓소 검정회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물밀 듯이 들어올 수입 유제품의 범람 속에 우리가 생산한 피와 같은 우유가 소비자들에게 필연으로 다가설 수 있는 주제로 HACCP을 낙농에서 점목시킬 부분과 국가별 FTA 협상 후 예견되는 한국낙농기들이 겪어야 할 난제와 글로벌시대에 한국낙농의 위치나 현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앞선 낙농부국들의 정책이나 그들의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 최첨단 착유방법인 로봇 착유기를 시동중인 회원농가 탐방도 가져보는 등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주)바이오앤 그린텍 생산 주요품목

제 품 명	기 능 및 효 과
소마노 분말제제	천연물 유래 황산화물질, 간기능개선, 면역증강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 유방염 예방 및 치유촉진
소마노 액상제제	유방염예방 및 치유를 촉진하고, 체세포감소
락토피스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으로 액상과 분말형태
락토플러스	사일리지 발효 전용 유산균제제로 500ml 한병으로 옥수수 3,000평을 해결
밀크피드	해발 650m 이상에서 서식하는 순수국내 토착 저온성 미생물을 활용하여 20년 이상 연구 끝에 탄생시킨 고기능성 발효사료

생산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기호성이 90% 이상 향상되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제품문의: 031-674-6641

(주) 우성사료, 2/4분기 축우스쿨 실시



(주)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5월 25일 직지사 파크호텔(경북 김천)에서 전국의 영업사원이 모인 가운데 2/4분기 축우스쿨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낙농신제품 오웰빙(5WellBeing)을 출시하여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하고 있는 우성사료는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줄이기 위한 대고객 사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말했다.

양운복 박사(반추동물연구원)의 반추동물영양생리를 주제로 반추동물의 소화생리를 이해하고 각종 유효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교육이 실시됐으며, 영업사원의 성공적인 세일즈 활동을 위한 프로세일즈맨의 길과 영업사원

의 영업활동 성공사례 발표는 한층 향상된 대고객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늘목장 우유요리교실 개최



서울우유 주부대학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지난 6월 22일 신하늘목장(경기 화성시 장덕동, 이정희 공동대표)에서 다양한 우유요리를 만들어 선보이고, 시식하는 우유요리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술 서울우유협동조합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여성분과위원회 포천지회 이인애(감바위목장)지회장은 70여명의 회원과 함께 참여하는 등 교육열기가 뜨거웠다.

제9기 우성사료 여성낙농대학 졸업식 거행

“여성 전문 낙농인 육성의 산실 우성사료”

우성사료(대표 지평은)가 제9기 여성낙농대학 졸업식을 치렀다.

지난 6월 7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소재 대산농협 2층에서 2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졸업식은



2003년 10월, 제 1기 보령 여성낙농대학 이후, 제 9기째로 총 2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여성 전문낙농인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1년 간의 과정으로 구성된 여성낙농대학은 “내 지역 축산발전은 내손으로..”라는 캣츠플레이즈를 내걸고 2002년 11월 충남 보령지역에서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첫 개강을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여성낙농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예비모임을 시

작으로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의와 현장 실무위주의 심도 있는 교육을 실



시하였다.

또한 바쁜 농장일로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과 피부관리를 위해 부인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골다공증의 예방과 영양관리, 환절기 피부관리 등의 특강을 실시하였고, 학생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야유회 등을 통해 여성낙농인의 삶의 질까지도 배려한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1년간 고창여성낙농대학을 이끈 문성혁(우성사료 지역부장)씨는“낙농산업의 경우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목장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국제경쟁력을 갖춘 여성낙농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손근남 이사(우성사료 축우 PM)는 올해도 전국 어디서나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과 축산 선진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한국형 현실에 맞는 서비스와의 조화를 이룬 토털마케팅을 실현하여 낙농가의 수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주)우성사료 양건 신제품 독무대 시리즈 출시

“우성사료 양건사료 품질 대폭 개선 신제품 출시”

축산사료업계의 선두그룹인 우성사료(대표 지평은)가 2006년 개의 해를 맞아 양건제품의 품질을 대폭 개선하여 새롭게 신제품을 런칭하였다.

양건사료 전통적인 강세를 지니고 있는 우성



사료는 94년 파트너 시리즈를 출시하며 양견제품의 포장디자인과 제품의 품질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켜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브랜드로 키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무대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독무대 시리즈는 총 13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견종과 성장단계에 따른 급여 프로그램에 의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개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영양소 결핍을 방지하였고 기호성과 소화율을 높여 분변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였다.

개 품개발을 담당한 위현동 과장(양견PM)은 “개는 개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며 개의 짧은 장구조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배합한 사료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며 개에게 기타 가축사료를 장기간 급여할 경우 발육부진, 소화불량, 산자수 감소, 자견불량으로 인한 폐사 등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내가 만든 치즈, 먹어보고 느껴보는 재미가

쏟아하다.

축산연구소, 소비자 대상 유제품 제조기술교육 실시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생활자원과와 공동으로 농촌생활대학생 50여명에게 발효유와 파자치즈를 비롯한 신선 자연치즈의 제조 및 소비방법에 대한 교육을 2006년 6월 20일 축산연구소 유가공장에서 실시하였다.

그동안 축산연구소에서는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가공제품의 개발로 지역브랜드화를 통한 우수소비촉진 및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치즈제조 등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목장형 유가공 제조기술워크숍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축산연구소 관계관은 “앞으로 유가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낙농가뿐만 아니라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제품제조 기술 및 체험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공 제조장비와 실험시설을 관심 있는 낙농가나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에게 개방하여 산·학·연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계통조성 돼지 종돈 능력검정소 출품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에서는 자체개발한 계통조성돈(듀록종모돈) 14두를 돼지 능력검정기관인 대한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

소에 출품하였다. 축산연구소에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계통조성중인 듀록 종모돈의 능력을 검증받기 위하여 국가검정기관인 종돈 능력 검정소에 출품하였으며, 계통조성이 완료되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돼지 인공수정센터에 보급 활용 할 계획이다.

축산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조성된 계통조성돈은 산육능력이 우수하며(평균 일당증체량 1,030g),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선호하는 체형 및 지체가 강건하여 인공수정 정액생산용으로도 탁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품질 비육돈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모계품종에 비해 종돈사용의 제한성, 사업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규모 사육을 기피하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듀록종에 대하여 1998년부터 9년째 계통조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능력평가가 완료되는 10월경에 검정결과 우수한 부분을 널리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계통조성이 완료되는 2007년부터 연간 100두 정도를 우수 돼지인공수정센터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부루세라 살처분 보상금“11월부터 80% 감액 부루세라 대책 유예해야”

발생농장 이동통제와 검사확대,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의 ‘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에 대해 한우농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루세라 근절을 위한 농가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 당해 가축

시세의 100%까지 지급하던 것을 오는 11월1일부터는 당해 가축시세의 80%까지 지급하고 2007년 4월1일부터는 당해 시세의 60%까지만 지급한다는 보완대책 내용으로 소 부루세라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서 농가가 일정 부문을 책임지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가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한우농가들은 현재의 부루세라병의 확산은 발생초기 조기근절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정부의 방역대책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는 지난 20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전두수 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정책을 1년여만에 상한액을 축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회장단들은 특히 시행시기가 11월로 설정돼 검사의뢰 폭주에 따른 홍수 출하와 이로 인한 가격하락은 물론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한우농가 계도 활동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회장단들은 “부루세라는 가축 전염병으로 국가 차원에서 근절할 의무가 있다. 재원확보와 매몰 부지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두수 검사가 이뤄진 뒤 보상금 축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를 농가교육 등 계도활동과 희망 시군별 전두수 검사(암소)가 이뤄질 수 있는 등의 조치를 마무리 한 뒤 2007년 1월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보상금 상한액 축소시행 이전에 이뤄진 부루세라 검진

농가와 의식축에 대한 자율적 검사 의뢰 농가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안 마련을 함께 건의키로 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월드컵광장서 한우 우수성 홍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국 대 토고전이 열린 지난 13일 시청앞 광장에서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 ‘소비자 82% 미국산 쇠고기 No’가 적힌 2천명분의 막대 풍선을 제작 배포, 큰 호응을 얻었다.

2006브랜드사업 지원대상 선정

농림부는 지난달 26일 축산물브랜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의회’의결을 거쳐 2006년 축산물 브랜드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및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축산물브랜드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24개 브랜드경영체는 531억원이 지원되며 ‘04~‘05년에 선정된 49개 경영체(총 73개)와 더불어 2013년까지 우수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총 73개 브랜드 경영체에 규모화·내실화를 위한 자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 경영체의 생산, 경영, 재무와 마케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여 판매 확대 및 소비자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브랜드 경영체의 내실화와 품질균일성, 규모화, 위생·안전성을 강화하여 유통업체 및 소

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수 축산물브랜드전시회’를 통해 우수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소비자 인식제고 등의 다각적인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브랜드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한우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의 50%, 돼지는 70%가 브랜드화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브랜드 사업을 통하여 브랜드 주체가 위생·안전성·품질·방역·환경 등 모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브랜드사업 지원 경영체로 선정된 곳은 경기북부한우 공동브랜드, 경기남부축협연합, 경기서북부 축협연합, 하이록한우, 강원 영동한우 공동브랜드, 6월의 아침, 강원양돈농협, 강원창영농법인, 충북한우광역사업단, 다살림농법인, 토바우사업단, 영농법인양돈사랑, 해송영농법인, 전북한우조합, 단풍미인한우영농법인, 진안무주축협, 나주축협, 영광축협, 담양축협, 조마농협, 한결한우사업단, 사천축협, 김해축협, 남제주축협 등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공동집회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소속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대학로에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공동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서 홍희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위원장과 이승호 한·미FTA 저지 농축수산대책위원회 회장은 공동으로 “부당한 쇠고기 수입개방 압

력으로 우리 국민들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은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 한다”며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식량주권을 포기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또 보건·의료연합은 광우병의 발생원인과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과 광우병 소를 맞바꾸는 한국정부’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도 “자식을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에서는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이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인간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한우 육종농가 9명 선정 집중 육성

농림부는 전북 익산시 관내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근수 씨를 비롯해 9명의 우수 한우 암소사육 농가를 한우육종농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우육종농가제도는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고능력 암소의 유전능력을 이용, 후보씨수소를 생산하는 제도로 매년 10호 내외의 한우사육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12농가가 선정됐다.

한우육종농가는 사육종인 고능력 암소와 보

증씨수소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 후보씨수소를 생산하며 암소와 생산 송아지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비롯해 발육조사, 혈통등록 등의 사양관리와 정기적인 유전능력을 평가받는 한편 동일한 사양 조건에서 유전평가를 받기 위해 계절번식을 해야 한다.

작년에 선정된 육종농가가 사육하는 암소 1,011두와 이들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 218두에 대한 질병검사와 친자확인, 발육상태 조사 등의 검정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한우육종농가가 생산한 송아지가 유전평가를 통해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해당 수소 생산농가는 정액판매액의 10%를 개량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한우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산하 가축개량사업소(충남 서산 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씨수소 50두에서 연간 150~160만두 분의 우량정액을 생산,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혈통 갱신을 위해 매년 20두의 보증씨수소를 새로 선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까지 체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우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국내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육질개량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종농가가 사육하는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등심 면적(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를 측정하고 암소 형제의 도체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2006년도 한우육종농가 선정농가는 경기 양주 이상순씨(60두), 강원 횡성 이상노씨(77), 양

양 김흥열씨(53), 충북 충주 이석재씨(74두), 전북 남원 박경씨(86두), 익산 이근수씨(131두), 전남 고흥 김종동씨(249두), 경북 경주 정병우씨(52두), 경남 밀양 이광원씨(54두)로 ()안은 혈통등록암소 보유두수이다.

한우 자조금 거출 호남 주목

한우자조금 5월 거출율이 89.7%를 기록해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거출율을 살펴보면 서울, 제주, 경북이 100%, 경남, 충북, 경기도가 각각 99.6%, 97.6%, 93.5%다. 뒤이어 강원이 84%, 충남이 79.1%, 전북 77%, 전남 62.4% 순이다.

자조금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거출율이 상승해 90%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전북, 전남 등 상대적으로 거출율이 저조한 지역의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 지역에는 자조금 거출율을 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숨은 주역이 있다.

김남배 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도축장으로 부터 미납자 명단을 입수해 일일이 납부독촉장을 발송한 장본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조금이 유통업자들을 통해 유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 그동안 미납금을 한번에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한우자조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광주와 삼국, 삼호 도축장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이근수 전북도지회장과 김근신 사무국장의 역할이 크다. 이들을 비롯한 협회 회원농가들은 수시로 근처 도축장과 시·군청 관계자를 만나 자조금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그

결과 전북지역은 4월 대비 11%나 증가한 자조금 납부율을 보여 머지않아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역도 서림, 부광 등 도축두수가 많은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80% 벽을 넘는 관건이다.

한편,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목철균 주임은 “당초 5월중에 90%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고질적으로 자조금 참여에 미온적인 도축장들이 없지 않아 문제해결이 요구된다”며 “특히 이들 도축장은 작업물량은 도내에서 1, 2위를 다툰 만큼 규모가 커 자조금 납부에 참여여부가 거출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감시활동 강화로 부정유통 뿌리뽑자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20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전국의 한우유통감시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참석한 유통감시원들에게 감시단 운영지침 매뉴얼을 나눠주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전달했고, 농관원 구돈회 사무관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관리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우협회 박선빈 차장은 “이날 교육은 최근 강화된 감시단 운영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이외에도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토론의 시간 등을 마련해 현장에서 감시활동에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축산경영학회 한·미FTA에 따른

한국축산의 대응전략 심포지엄

한·미FTA는 국내 축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축산경영학회(학회장 이병오)와 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한·미FTA에 따른 한국축산의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축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양부 전 아르헨티나 대상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쇠고기, 양돈, 닭고기 분야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축산품목이 반드시 민감품목으로 지정돼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국내 축산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발전방안 모색

TF팀 구성

농림부는 지난 9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축육개량협회, 축산연구소, 한우협회, 경상대학교 관계자들로 한·미FTA에 따른 TF팀을 구성했다.

농림부는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을 팀장으로 3주간 TF팀에서는 소 개체등록 관련한 가축개량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공제, 종축등록, 인공수정 지원, 축산업등록제 등과 정보연계를 통한 현장등록 업무 간소화 방안을 집중논의 된다.

또한 이들 사업의 DB통합 방안, 생산단계 DNA 검사결과 DB화 및 활용방안, 귀표에 지역 표기 여부를 추가하는 등 귀표체계 개편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다.

지난 16일 그 첫 회의가 경기도 군포 축산물등급판정소 소회의실에서 열려 기관, 개인별 역할 및 과제부여,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은 2004년 9개 업체 4만마리, 10개 판매장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2006년 5월 현재 17개업체와 파주·김제·김해 지역, 11만마리, 49개 판매장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2007년에는 육우브랜드도 포함해 50개소 내외로 시범사업 참여업체·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참여 마리수도 40만두로 총 사육마리수의 18%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제화도 내년 완료 후 2008년부터는 전국단위 시행에 돌입, 2009년에는 의무실시할 예정이다.

캐나다, 젓소종모우 '아웃사이트' 정액 1백만

해외소식

개생산

캐나다 최대 젓소정액 회사인 '씨맥스' 사 보유 유명종모우 '컴스타 아웃사이드' 가 정액 1백2만1천개를 생산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1998년 8월에 처음으로 캐나다 전체 종모우 순위에서 생애수익지수(LPI) 기준 20위로 등장한 '아웃사이드'는 그해 11월에는 5등으로 뛰어오르면서 낙농가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우유와 유지방 생산능력이 좋고 유방부위와 발굽다리가 우수한 이상적인 체격을 갖춘 딸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웃사이드'는 '로리 시크' 혈통으로 아버지가 유명한 종모우 '로니브록 프레루드'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 광우병 안전국가 발표...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뉴질랜드가 광우병(BSE) 안전 국가(BSE-free county)중 하나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 기관을 통해 광우병 청정국가로 인정받은 나라는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다. 뉴질랜드는 최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도 '광우병 청정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

뉴질랜드 식육양모협회(Meat & Wool New Zealand)의 마이크 피터슨 부회장은 광우병 청정국가 선정결과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권위있는 국제기구들로부터 인정받은 일은 큰 의미가 있다. 뉴질랜드 축산농가와 정부기관이 광우병 발생에 대비한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터슨 씨는 "이번 발표가 전 세계 쇠고기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세계 제7위의 소고기 수출국으로, 생산량의 83%를 수출해 매년 23억 달러를 벌어들여

고 있다.

일본, 반딧불 발광효소로 광우병 판정효율 향상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축산시험장은 최근 BSE(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상(異常)프리온을 반딧불의 발광효소를 사용하여 빛을 내게 함으로써 검사시간을 지금의 3분의 2로 단축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는 전두(全頭)검사의 1차 검사용 기술로서, 종래보다 감도(感度)도 높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식육(食肉)을 보다 빨리 유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 실용화가 기대된다.

BSE는 프리온단백질의 변이(變異)체가 뇌(腦)나 척추(脊椎)에 축적됨으로써 발병한다. 현재 BSE의 1차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라이저법(면역생화학검사)은 면역반응을 이용하고 있는데, 항체를 이용하여 그 항체와 반응하는 이상프리온단백질을 검출한다. 그리고 뇌나 척추세포를 잘게 부순 액(液)에 효소를 첨가하여 단백질을 파괴시키는데 이상프리온단백질은 효소로 파괴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이상 프리온단백질을 모아 순도(純度)를 높이고, 양산(量産)이 가능해진 반딧불의 발광효소「루시페라제」를 사용하여 빛을 내게 한다. 단백질을 효소로 파괴시키는 것까지는 종래와 같다. 그러나 그 후 자성(磁性)입자를 첨가하여 이상프리온단백질과 반응시킨 다음 자석(磁石)으로 모은다. 그리고 루시페라제로 표시를 한 항체를 첨가하여 이상프리온단백질과 반응시킨 다음 루시페라제의 발광강도를 측정하여 이상프리온단백질의 유무(有無)를 조사한다.

루시페라제는 발광까지의 반응시간이 8분 정도로, 에라이저법의 발색(發色)반응시간인 약 30분보

다 크게 단축된다. 뇌나 척추의 분쇄 등 전(前)처리를 합한 검사시간은 지금까지 4시간~4시간 30분 걸렸지만, 동(同)축산시험장의 방법으로는 약 2시간 45분으로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감도는 에라이저법을 웃돈다. 실용화에 있어서는 어느 발광강도에서 양성(陽性)으로 할 것인지 등의 기준치를 만드는 과제 등이 남아 있지만, 동(同)축산시험장 공학부장은 2년 후에는 실용화 심사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추겠다」고 말한다.

중국, 차이나유업 젖소정액 판매로순익 26.3%증가

중국내 유망 유업체중 하나인 차이나유업 그룹은 3월 마감 회계연도 순익이 정액 판매 및 성공적인 젖소 번식프로그램에 힘입어, 매출액은 전년대비 23.5% 증가한 3억 1백 만유안(중국화폐), 순익은 26.3%가 증가한 2억 7천 2백 만유안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유제품외에 우수혈통종축의 정액과 수정란을 주로 판매하는 이 회사는 금년 중 자체 농장에 젖소 3천두를 추가로 입식하고 연산 15만톤의 새로운 유가공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美 소비자단체, "미국 산 쇠고기, 광우병안전 확신 못해"

한달 수입 유예로 안전 담보할 수 있나?

농림부가 7일로 예정됐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이 미국 현지 도축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도축장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농림부가 지적한 문제점은 미국 산 쇠고기와 다른 나라의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거나 30개월 이상과 이하의 소를 처

리하는데 있어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미국 현지 도축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미국 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 농림부가 지적한 미국 현지 도축장의 문제점은 그동안 미국 안팎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CBS가 이미 지난 5월 보도한 대로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연방정부가 도축작업장에서 지켜야할 광우병 관련 규제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미국 농림부의 자체 조사결과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이런 규제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829건에 이르며, 이 위반 사례 중에는 우리 농림부가 지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사례가 전체의 절반이 되는 가하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뇌, 척수 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기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미국의 이 같은 허술한 광우병 검역, 예방체계와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자료를 입수, 공개했던 미국의 소비자단체의 '패티 로베라(Patty Lovera)' 부국장은 CBS <이슈와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미국에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불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패티 로베라 부국장은 또 "미국의 경우 지난 97년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동물

의 피나 닭 뼈 등과 같은 동물 부산물은 아직도 사료에 혼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닭에게는 동물성 사료가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성 사료를 먹은 닭의 뼈가 포함된 사료를 소가 다시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미국의 허술한 광우병 검역, 예방체계가 개선된 뒤에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패티 로베라 부국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번에 농림부가 미국 현지 일부 도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출작업장 승인을 연기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수입재개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수입재개 결정 자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조차 심각한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가 발견된 상황에서 최소한 수입 대상 소들에 한해서라도 광우병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 홀스타인후리지안 연맹, 체형국제기준 권고

세계 홀스타인 후리지안 연맹(WHFF)이 작년 11월에 개최된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홀스타인 젖소 선행심사 항목 16개 형질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각국에 이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연맹에서는 국제 종축평가기관인 '인터볼'과 협조하여 비유능력은 물론 체형심사에서도 국제통일을 위해 격년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화 작업을 해왔는데 특히 체형심사의 특징기준을 유방계, 발굽과 다리, 골격, 유용성의 4항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방계 40%, 발굽과 다리 20~30%, 골격 20~30%, 유용성 10%의 비중을 두고 있어 종전에 고려하던 체적에는 배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광우병, 수수께끼같은 드문변종"

지난해와 올해 텍사스와 앨라배마에서 각각 발생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미국의 광우병은 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변종으로부터 유래한 듯 하다고 연구자들이 밝혔다.

미국 정부관리들도 미국내의 두 가지 발생 사례와 1980년대 이후 수천마리의 살처분에 이른 영국 광우병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차이려면 단지 뇌소모성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농무부의 책임수의사인 줄 클리포드는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 우리에게 달리 말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광우병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런던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사례와 유럽의 유사사례를 소개 하면서 이들 광우병 소는 이제 막 규명하기 시작한 부정형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10여 마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설명했다.